

사회적 배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및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분석

황 해 인* · 김 연 희** · 이 희 선***

논 문 요 약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의 주요 변수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배제의 하위변수들로 사용한 경제배제, 사회배제, 정치배제 변수들 모두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 중 경제배제와 사회배제는 임파워먼트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수인 임파워먼트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들 변수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는 사회배제($\beta=-0.438$), 임파워먼트($\beta=0.349$), 경제배제($\beta=-0.318$), 정치배제($\beta=-0.107$)의 순으로 입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삶의 만족도 향상에 주된 관심을 가진 정책결정자들이 향후 정책 수립 시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배제, 임파워먼트, 경제배제, 정치배제 등의 변수들을 관리수단으로 고려해야하며 이와 동시에 이들 변수들 간의 우선순위를 반영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주제어: 삶의 만족도, 사회적 배제, 임파워먼트

* 제1저자

** 공동저자

*** 교신저자

I. 서론

한국사회는 지난 1995년 국민소득 1만 달러, 12년만인 2007년에는 2만 달러를 돌파하여 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만 9745달러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한국은행, 2018). 경제발전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에는 국민총소득(GNI)을 포함한 거시경제 지표를 국부(國富)의 척도로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가늠하였다. 그러나 수출주도형 정책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이후, 경제적인 삶의 수준 향상은 사회·정치적인 요소와 더불어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써 작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났고, 이러한 인식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요인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삶의 만족도의 결정요인으로써 빈곤이 주된 논의 대상이 되었다. 빈곤에 처할 경우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진행되어 온 빈곤과 관련한 연구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빈곤 현상을 정의하고 접근하는 데 집중되어 왔을 뿐, 경제적 차원 외에 빈곤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사회문제를 빈곤과 결합할 수 있는 사회적·정치적 측면의 문제에 집중하기 위한 접근으로써 사회적 배제에 대한 연구가 한국 복지정책의 주요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회적 배제는 사회구조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박탈과 결핍, 불이익을 당해 사회·경제·정치활동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하여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침해당하는 상황이라 규정할 수 있다(신명호, 2004). 이와 같이 사회적 배제는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회적 취약집단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왔다(강신욱, 2006). 한편 사회적 배제를 겪는 취약집단에 속한 자들이 경험한 차별과 불평등은 그들이 가진 능력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이렇게 취약해진 능력은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돌파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이 어려움이 자칫하면 세습화되어 그들을 빈곤계층으로 정형화시킬 수도 있다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이에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사회에서 배제되는 집단에 대한 임파워먼트 향상을 주요과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임파워먼트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자원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으로써 누구나 지닌 역량이므로 개발하기에 따라서는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이수천 외, 2013). 또한 임파워먼트는 불이익과 억압으로부터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가 내적인 무기력을 극복할 뿐 아니라 사회구조에 의해 억압되어진 권리의 회복을 요구함으로써 권리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이기에 배제된 집단 구성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실성 있는 방법으로 임파워먼트를 매개변수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배제가 그들의 임파워먼트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임파워먼트 또

한 삶의 만족도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사회적 배제와 삶의 만족도 변수 간의 인과관계와 더불어 임파워먼트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개연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정책을 집행하는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에서 사회적 배제 수준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배제와 임파워먼트 등의 영향요인들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배제 연구대상으로써 소홀히 여겨지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배제의 주요변수들의 영향과 더불어 임파워먼트의 매개변수로서의 효과분석에 관심을 두어 “이들 변수들이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들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나 그 정도는 어떠한지?”등을 연구문제로 설정하여 다루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학문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자들이 향후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시 경제배제, 사회배제, 정치배제, 임파워먼트 등의 변수들을 관리수단으로 고려하고 이들 변수들 간의 우선순위 크기를 반영한 효과적인 관리와 정책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II. 이론적 배경 및 개념 간의 인과적 관계

1.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배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빈곤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분석틀이다. 아직 ‘사회적 배제’ 개념에 대해 완전한 이론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학계에서 수용되는 통일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다양한 용법으로 사회적 배제가 활용되고 있으며, 이념적 성향에 따라 상이하게 접근되기도 한다(김연희 외, 2012). 그러나 사회적 배제의 개념에 대해 통일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적 유용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후기 산업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전면적이고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고려할 때, 기존의 빈곤보다는 사회적 배제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사회적 합의가 클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빈곤과 박탈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문진영, 2010). 이에 Berghman(1995)은 빈곤의 개념을 경

제적 측면을 강조하여 정태적인 결과로 설명하고, 사회적 배제는 동태적인 과정과 다차원적 요소에 초점을 두는 개념¹⁾이라고 언급하여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개념들을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배제의 개념과 관련하여 Turner(1986)는 사회·경제·정치활동 및 그 참여과정 속에서 특정 집단이나 개인이 사회의 희소자원에 접근할 수 없거나 혹은 그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Giddens(1998)는 배제를 사회의 주류로부터 격리시키는 메카니즘으로 파악하였고, 배제의 극복은 빈곤계층에 초점을 맞춘 구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들의 민주적인 참여를 중요시 여기는 방향으로 재조정될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박병현·최선미(2001)는 사회적 배제란 일부 집단들을 사회의 주류집단으로부터 격리시키는 일종의 메카니즘으로서 작용되며 이는 빈곤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소득뿐만 아니라 건강,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채무, 주택 등의 문제와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개인과 집단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 이르는 다원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최재성·강영숙·김진욱(2009)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배제는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담론으로서 빈곤이나 불평등과 같은 기존의 사회정책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차원적인 사회문제 혹은 갈등을 분석할 때 사용되어왔다고 설명하였다.

이상과 같이 다양한 국·내외 문헌들에서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 배제에 대한 개념정의는 비교적 다양한 유형의 견해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정의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사회적 배제의 개념에서 다루는 범위가 단순히 경제적 차원의 빈곤을 뛰어넘는 다양한 영역 내에서 자원의 박탈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를 경제·사회·정치활동 속에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주류집단으로부터의 격리로 인해 사회의 주요자원에 접근할 수 없는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존 이론의 비교적 공통된 의미로서 사회적 배제를 경제배제, 사회배제, 정치배제 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있는 복합적인 의미의 다차원적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하였다.

(1) 경제배제

경제배제(Economic Exclusion)는 소득 및 생산과 관련된 문제로 다른 사람들은 접근 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일부 사람들이 접근 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의(Bhalla et al., 1997)되며, Percy-Smith(2000)는 사회적 배제를 경제적 요인들로만 축소시킬

1) 빈곤개념과 사회적 배제 개념 특성의 비교

	정태적 결과(static outcome)	동태적 과정(dynamic process)
소득중심	빈곤(poverty)	궁핍화(impoverishment)
다차원적	박탈(deprivation)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수는 없지만, 경제적 요인들이 사회적 배제의 중요한 측면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박미란·최정원(2015)은 경제배제의 개념적인 구성요소로서 소득영역, 노동시장, 주거영역 등의 요소를 들고 있고,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Robinson & Oppenheim(1998)은 사회적 배제를 경제 중심으로 해석하여 대상 영역을 더 좁혀 빈곤이나 저소득과 관련된 영역으로 국한시켰다.

이상의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제배제를 주로 재정적 빈곤 때문에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지속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사회배제

사회배제(Social Exclusion)는 사회적 차원에서 가족이나 이웃과 같은 공동체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인간관계가 해체되거나 단절된 경우, 개인 간의 통합이 위협받는 경우를 지칭한다(Vleminckx et al., 2001). 실제로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긴밀한 사회적 관계는 개인의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서적·물질적 측면에서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관계망은 단기간에 형성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지만, 그 대신 쉽사리 해체되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고, 또 물질적 자원의 보유 유무와 무관하게 동원 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다(신명호 외, 2004). 이와 같이 중·고령자가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 혹은 사회적 관계망은 그들에게 주요한 자원으로 기능한다.

이상의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배제를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정서적인 사회적 관계가 박탈되거나 약한 사회적 관계망의 노출이 지속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하였다.

(3) 정치배제

정치배제(Political Exclusion)는 권력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되며,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Bhalla & Lapeyre, 1997). 또한 Gaventa(1998)는 참여란 사회적 통합의 강력한 수단이며 빈곤 및 실업극복에 대한 새로운 에너지와 자원에 대한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정치배제에 대해 김연희·신황용·이희선(2012)은 정치적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자원정보 및 기회의 부족, 활동적인 정치참여의 불가능과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의 목소리와 요구가 정치적 안전에 포함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배제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의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치배제를 정치적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주류계층으로부터의 단절로 인해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Empowerment)는 힘을 중심으로 하는 심리적 양상으로 자신의 삶과 환경 및 타인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Thomas and Velthouse, 1990). 따라서 임파워먼트는 인간을 고유한 감정, 생각, 목표를 가진 존엄한 존재로 보면서 권력이 작동하는 체계와 관계 속에서 억압받고 고통 받기도 하지만 난관을 극복하고 더 나은 환경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존재로 본다(최명민·김기덕, 2013).

임파워먼트의 구성요소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지만 개인적 수준에서 대인적 수준, 사회정치적 수준으로 발전되어 간다(Gutierre, 1990). 개인적 수준의 임파워먼트는 자신의 삶에 관한 통제감이나 효능감, 자아존중감, 자기결정권과 관련되어 있다(신선화, 2016). 더 나아가 대인적 수준의 임파워먼트는 집단 내 상호작용과 역동 안에서 타인과 조화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믿음이며(전종미, 2010), 사회정치적 수준의 임파워먼트는 리더십과 정치적 통제의 개념으로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서 인지된 능력과 자기효능감을 의미하는 개념이다(김안나·최승아, 2016).

최선미(2001)는 임파워먼트는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가 개인의 내면적인 무기력을 극복할 뿐 아니라 사회구조에 대해 억압되어진 권리의 회복을 요구함으로써 권리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련의 과정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김혜란·좌현숙·차유림·문영주·김보미(2006)는 역량강화실천²⁾에서 역량은 자신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해결하는 능력과 관련한 감정과 생각을 의미하는 개인적 수준,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다른 사람들과의 경험을 의미하는 대인적 수준, 자조 노력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사회 제도를 의미하는 환경적 수준에서 발생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이용주(2007)는 임파워먼트를 개인적 수준에서 측정하여 개인적 임파워먼트는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며, 실제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사회·정치적 의식을 고양시키는 일련의 심리적·인지적 과정으로 보았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임파워먼트의 개념을 무기력을 경험하고 있는 당사자가 내면적인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잠재역량과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하여 삶의 만족도를 향상해 가는 개인 내적인 심리과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에 관한 주관적인 평가를 뜻하며(Efklides et al, 2003)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구분된다. 좁은 의미의 삶의 만족

2) 사회복지영역에서는 Empowerment를 ‘임파워먼트,’ ‘역량강화,’ ‘능력고취,’ ‘권한부여’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최명민 외, 2006).

도는 생활만족도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되는 반면(김수봉, 2010), 넓은 의미의 삶의 만족도는 생활만족도를 포괄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된다(박민서·조규범, 2003). 넓은 의미의 삶의 만족도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는 생활만족도, 행복감, 삶의 질, 심리적 안녕감, 심리적 복지, 주관적 안녕, 복지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이고 함축적인 의미의 개념이다(윤현숙·원성원, 2010).

Kalish(1975)는 삶의 만족도란 생애에 의미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주요 목표를 성취했다고 느끼며 환경과 조화를 유지하며 어려움을 겪지 않고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Schalock(1996)은 전 생애에 걸쳐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에 관한 판단 또는 자신의 기대에 대한 충족으로 파악하였다.

최성재(1986)는 삶의 만족도를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평가와 미래의 삶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로 개인이 인식하는 삶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인 만족감으로 정의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강현정(2009)은 삶의 만족도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생애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적어도 주요한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느끼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대체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낙관적인 태도와 기분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파악했다. 정순돌·이현희(2012)는 삶의 만족도는 생활만족도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삶의 만족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동일한 객관적 현실에 놓여있다 하여도 각자가 과거 경험, 현재의 기대와 가치 등에 의해 그 현실이 완전히 다르게 경험되면서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크다고 언급하였다.

앞서 언급한 삶의 만족도에 대한 다양한 개념 정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란 삶의 주체인 인간이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개념간의 인과적 관계 및 가설설정

1) 사회적 배제와 임파워먼트의 관계

사회적 배제는 불이익과 억압으로부터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극복되어질 수 있으므로 집단 구성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실성 있는 방법으로 임파워먼트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중·고령자가 더 나은 환경을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인 임파워먼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권신영(2012), 성낙현(2014), 이화명(2015)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연구 분야의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권신영(2012)은 자활사업 참여자인 빈곤 여성가구주를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 자활성과, 임파워먼트 등을 변수로 선정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사회적 배제가 개인 내적 임파워먼트, 대인관계 임파워먼트, 사회정치 임파워먼트에 모두 부(-)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낙현(2014)은 자활사업 참여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 자립의지, 사회적 자본, 임파워먼트를 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과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사회적 배제 중 문화적 배제, 지역적 배제, 기본적 배제는 임파워먼트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적 배제, 사회참여 배제, 관계적 배제는 임파워먼트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화명(2015)은 양산시에 거주하는 한부모 빈곤여성을 대상으로 빈곤극복의지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배제를 독립변수로 임파워먼트를 매개변수로, 사회적 지지를 조절변수로 설정하여 이들 변인들 사이의 인과적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사회적 배제는 한부모 빈곤 여성의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부모 빈곤 여성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빈곤 극복 의지의 관계에서 임파워먼트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배제의 요인들이 임파워먼트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사회적 배제는 임파워먼트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경제배제는 임파워먼트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사회배제는 임파워먼트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정치배제는 임파워먼트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사회적 배제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장애인, 국제결혼이주여성, 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 배제와 삶의 만족도에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사회적 배제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로는 최재성·강영숙·김진옥(2009), 김연희·신황용·이희선(2012), 임동현(2013)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연구 분야의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먼저 최재성·강영숙·김진옥(2009)은 국민기초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지된 사회통합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사회적 배제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사회적 배제 수준이 인지된 사회통합감을 매개로하여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갖는다고 제시하였다.

김연희·신황용·이희선(2012)은 1982-2009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토대로 하여 개별 변수에 대한 동태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사회적 배제와 삶의 만족도 간의 인과적인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경제에서의 배제와 사회에서의 배제는 행복감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치에서의 배제 요인은 행복감에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다.

임동현(2013)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의 하위변수를 경제적 배제, 관계적 배제, 문화적 배제, 사회참여 배제, 지역사회 배제, 기본 서비스 배제로 선정하여 사회적 배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문화적 배제, 지역사회 배제, 경제적 배제만이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배제는 삶의 만족도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사회적 배제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경제배제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사회배제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정치배제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임파워먼트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

동일한 환경에 놓여있더라도 개인의 잠재역량과 지역사회 자원의 이용능력 즉, 임파워먼트 수준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Boyd & Bentley(2005), 최명민·이기영·엄태완(2006), 박미경(2011), 오옥선(2014), 김안나·최승아(2017)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연구의 변수 간 인과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oyd & Bentley(2005)는 미국의 클럽하우스 회원과 지역정신보건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개인적 수준의 임파워먼트와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임파워먼트가 삶의 질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명민·이기영·엄태완(2006)은 정신보건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임파워먼트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중회귀분석결과, 임파워먼트가 삶의 질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질도 증가한다고 밝혔다.

박미경(2011)은 경기도 지역의 지역정신보건기관(정신보건센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임파워먼트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임파워먼트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 높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옥선(2014)은 다문화가정 어머니를 대상으로 임파워먼트와 삶의 만족도의 영향관계를 분석한 결과 임파워먼트 수준은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안나·최승아(2017)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학력 미스매치와 임파워먼트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차별경험은 독립적으로 투입했을 경우에만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도 임파워먼트는 삶의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므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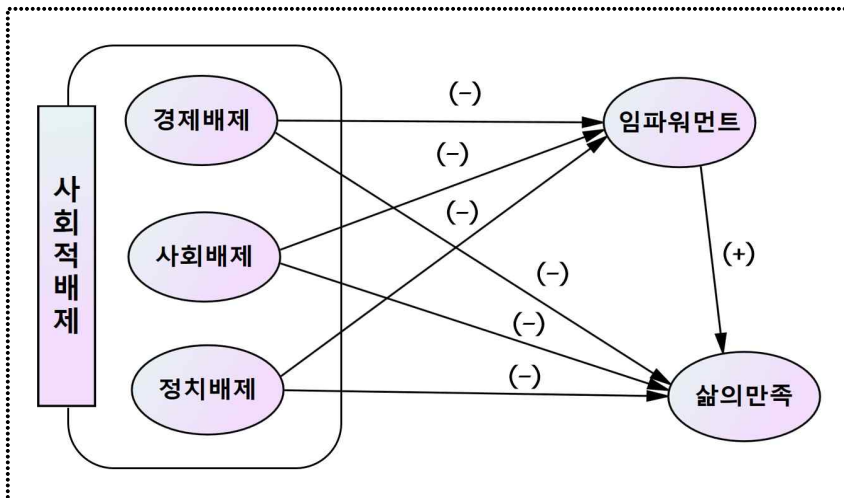
〈가설 3〉 임파워먼트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모형 및 변수측정과 척도구성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 임파워먼트,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와 실증적인 선행 연구의 검토결과를 토대로 하여, 사회적 배제로써 경제배제, 사회배제 및 정치배제를 적실성 있는 요소로 상정하였다. 따라서 이들 요소가 중·고령자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고 사회적 배제와 삶의 만족도 변수 간에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즉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에 대하여 경제배제, 사회배제, 정치배제를 사회적 배제의 하위변수로 설정하고, 임파워먼트를 매개변수로 정하여 이들 독립변수들과 매개변수가 각각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더불어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한 간접적인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한편, 본 연구에서는 경로모형의 구조적인 인과과계를 분석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들을 가정하고자 한다. 첫째,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다양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로 사회적배제가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의 하위변수인 경제배제, 사회배제, 정치배제 및 임파워먼트 변수들만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한다. 둘째, 경로모형은 단일방향의 비대칭적 인과관계(recursive causality)와 인과적 폐쇄성(causal closure)을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 셋째, 연구모형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는 선형(linear)임을 가정한다. 넷째,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가 없을 것임을 가정한다.

2. 변수의 측정

1) 사회적 배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서의 사회적 배제를 복합적인 의미의 다차원적 개념으로 정의하였으며, 사회적 배제를 측정하기 위해서 경제배제, 사회배제, 정치배제 등의 차원별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먼저 경제배제의 변수에 대한 측정을 위해 SEU(2006), 김태준(2010), 임동현(2013), 박요한(2014), 성낙현(2014) 등이 사용한 측정항목을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즉 ① 공과금이나 기타 청구서를 지불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② 물건을 사는 것이나 먹는 습관을 바꾼 일이 있음, ③ 필요한 병원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있음, ④ 여가나 레저활동에 드는 비용을 줄여야 한 적이 있음, ⑤ 집안의 냉방이나 난방의 사용을 자제한 경우가 있음 등 총 5개의 설문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각 측정문항의 응답형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어 경제배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배제 변수에 대해서는 SEU(2006), 김태준(2010), 임동현(2013), 박요한(2014), 성낙현(2014) 등이 사용한 측정항목을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즉 ①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 속해 있다고 느낌, ②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외로움을 느낌, ③ 지역사회 사람들 대부분은 믿을 수 있음, ④ 지역사회 사람들 대부분은 서로 친절함, ⑤ 어려움을 겪을 경우 지역사회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것임 등 총 5개의 설문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각 측정문항의 응답형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문항 ②는 점수가 높을수록 약한 사회적 관계망의 노출로 인한 사회배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고, 그 외 문항 ①, ③, ④, ⑤는 점수가 낮을수록 약한 사회적 관계망의 노출로 인한 사회배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배제 수준이 높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항 ②를 제외한 문항 ①, ③, ④, ⑤는 역코딩을 실시하

였다.

정치배제 변수는 최재성·강영숙·김진욱(2009) 등이 사용한 측정항목을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즉 ①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함, ② 정치단체의 행사나 모임에 자주 참여함, ③ 시민·권익옹호·환경단체의 행사나 모임에 자주 참여함, ④ 지역의 주민 모임 또는 주민자치단체 활동에 적극적임, ⑤ 각종 서명활동에 자주 참여함 등 총 5개의 설문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각 측정문항의 응답형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문항 ①, ②, ③, ④, ⑤는 점수가 낮을수록 단절로 인해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장받지 못하여 정치배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배제 수준이 낮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①, ②, ③, ④, ⑤에 해당하는 문항을 역코딩하였다.

2) 임파워먼트

매개변수인 임파워먼트의 변수에 대한 측정을 위해 임정기(1999), 이용주(2007) 등이 사용한 측정항목을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하였다. 즉 ① 계획을 세울 때 거의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함, ② 종종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음, ③ 내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느낌, ④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 더 잘할 수 있음, ⑤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자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달려있음 등 총 5개의 설문문항으로 재구성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각 측정문항의 응답형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무기력을 극복하려는 내적인 힘인 임파워먼트가 높음을 의미한다.

3) 삶의 만족도

본 연구는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를 삶의 주체인 인간이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주관적 만족감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 변수에 대한 측정을 위해 Diner, Emmons, Larsen, & Griffin(1985)이 사용한 측정항목을 활용하였다. 즉 ① 내 인생은 꿈꿔왔던 것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음, ② 나의 생활여건들은 아주 좋은 편임, ③ 나는 내 인생에 대하여 만족함, ④ 살아오면서 내가 원했던 중요한 것들을 성취해왔음, ⑤ 내 삶을 다시 살아가더라도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것임 등 총 5개의 설문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각 측정문항의 응답형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상으로 사회적 배제, 임파워먼트, 삶의 만족도 변수의 측정문항 및 출처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측정문항 및 출처

구분	측정변수	측정항목	출처
독립 변수	경제배제	① 공과금이나 기타 청구서를 지불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② 물건을 사는 것이나 먹는 습관을 바꾼 일이 있음 ③ 필요한 병원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있음 ④ 여가나 레저활동에 드는 비용을 줄여야 한 적이 있음 ⑤ 집안의 냉방이나 난방의 사용을 자제한 경우가 있음	SEU (2006) 김태준 (2010) 임동현 (2013)
	사회배제	① 내가 사는 지역사회에 속해 있다고 느낌* ②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외로움을 느낌 ③ 지역사회 사람들 대부분은 믿을 수 있음* ④ 지역사회 사람들 대부분은 서로 친절함* ⑤ 어려움을 겪을 경우 지역사회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것임*	박요한 (2014) 성낙현 (2014)
	정치배제	①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의사 표시함* ② 정치단체의 행사나 모임에 자주 참여함* ③ 시민·권익옹호·환경단체의 행사나 모임에 자주 참여함* ④ 지역의 주민 모임 또는 주민자치단체 활동에 적극적임* ⑤ 각종 서명활동에 자주 참여함*	최재성 강영숙 김진욱 (2009)
매개 변수	임파워먼트	① 계획을 세울 때, 거의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함 ② 종종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음 ③ 내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느낌 ④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 더 잘 할 수 있음 ⑤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자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달려있음	임정기 (1999) 이용주 (2007)
종속 변수	삶의 만족도	① 내 인생은 꿈꿔왔던 것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음 ② 나의 생활여건들은 아주 좋은 편임 ③ 나는 내 인생에 대하여 만족함 ④ 살아오면서 내가 원했던 중요한 것들을 성취해왔음 ⑤ 내 삶을 다시 살아가더라도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것임	Diner, Emmons, Larsen, & Griffin (1985)
통제 변수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소득, 직종, 근로조건, 가구형태	-

* : 역코딩 문항

3. 표본추출과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표본추출의 방법으로는 조사의 편의를 위하여 비확률 표집방법의 하나인 임의 표집방법을 사용하였고,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중·고령자들을 대상으로 모집단의 범위

를 설정하였다. 안산시는 인구가 밀집된 수도의 서남권에 위치한 공업의 핵심지역으로써 전국 각지로부터 이주하여 정착한 사람들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안양시, 화성시, 시흥시, 의왕시 등에 비해 타지로부터 유입되는 중·고령자가 많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³⁾. 따라서 안산 지역 내의 전국의 중·고령자가 골고루 분포하여 그들의 인식 상의 편차가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모집단 범위를 경기도 안산시의 중·고령자로 선정하였다.

한편 중·고령자 연령의 합의된 기준은 없으므로 중·고령자에 대한 개념정의는 법령이나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한다. 우리나라 고용 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⁴⁾에 따르면 50세-54세를 준·고령자로 정의하고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간주한다. 한편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45세 이상(최성수 외, 2008, 윤지은·전혜정, 2009, 강소량·문상호, 2010), 50세-74세(박미현, 2012), 55세-75세(조현석, 2017)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선행연구마다 그 시기에 차이가 나타난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연구패널⁵⁾은 중·고령자를 45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1990년대 말 외환위기로 인해 40대 중반부터 비자발적으로 은퇴하는 한국 사회의 변동을 고려하여 45세 이상을 중·고령자로 정의하였다. 설문조사는 2017년 9월 28일부터 2017년 10월 8일까지 진행하였고,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고 중·고령자들에게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설문참여의 동의를 얻은 후 조사한 320부 중에서 신뢰성이 낮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4부를 제외한 총 306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4.0 및 AMOS 21.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가설검증을 위한 변수들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 분석을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실시하였다.

3) 2010-2017년 사이 경기도 안산시 중·고령자의 총 전입자 수는 230,808명으로 이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등에 이어 7번째로 많은 수치이다(국내인구이동통계).

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용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과 2항에서는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다.

5) 연령층을 45세 이상으로 확대한 이유는 외환위기 이후 중년기의 주된 일자리 변동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기 때문이며, 그와 더불어 중년기의 경제활동이 고령자의 일자리나 노후생활과 갖는 관계를 살펴보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한국노동연구원, 2007).

IV. 분석결과

1.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

본 연구의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model fit)에 있어서 $\chi^2=297.030(df=160, p=.000)$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Q(\chi^2/df)=1.856$ 로 판단기준 3보다 낮았고, AGFI, NFI를 제외한 $GFI=0.915$, $CFI=0.944$, $IFI=0.945$, $TLI=0.934$ 의 지표 값은 모두 판단기준인 0.9 이상의 수치를 나타냈으며, $AGFI=0.889$, $NFI=0.888$ 도 모두 0.9에 근접한 값으로 나타났다. $RMR=0.040$, $RMSEA=0.053$ 의 값도 마찬가지로 각각 일반적 기준조건에 해당하는 0.05이하와 0.1이하의 수치에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수들의 표준화된 요인적재치의 $t(C.R)$ 값이 1.965($p<.001$) 이상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인적재치(factor loading)가 절대값 0.4이상이면 개념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바(Barclay et al. 1995), 모든 변수들의 측정항목에서 0.4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중상관자승(Square Multiple Correlation) 지표의 허용범위는 0.2-0.9이며 본 연구에서도 모두 0.2 이상 0.9이하의 값을 나타내는 등 사용된 항목들의 단일차원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AVE의 경우 모두 0.5이상이며, 개념신뢰도 역시 0.7이상으로 나타나 집중타당도 및 판별타당도⁷⁾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형은 표본자료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신뢰도 검증 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주요 변수의 Cronbach's α 값이 경제배제 0.898, 사회배제 0.708, 정치배제 0.829, 임파워먼트 0.745, 삶의 만족도 0.784로 모두 0.7이상으로 나타나 측정도구의 신뢰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⁸⁾

6) 모형적합도를 판단하는 전반적 지수는 GFI (Goodness of Fit Index), $AGFI$ (Adjust Goodness of Fit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NFI (Normed Fit Index), IFI (Incremental fit index), TLI (Tucker-Lewis Index), RMR (Root Mean Square Residual),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등의 지수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RMR 은 0.05이하일 때, $RMSEA$ 는 0.1이하일 때 모형의 적합도가 좋다고 평가된다(Bentler&Bonett, 1980). 이 외의 GFI , $AGFI$, CFI , NFI , IFI , TLI 에 해당하는 나머지 항목은 0.9이상일 때 모형의 적합도가 좋다고 평가된다.

7) 판별타당성은 잠재변수의 AVE가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크면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우종필, 2012). 상관관계 분석에서 상관계수가 가장 큰 값은 임파워먼트와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계수로 0.461이었다. 임파워먼트의 AVE값은 0.607, 삶의 만족도의 AVE값은 0.696이며, 임파워먼트와 삶의만족도 간의 상관계수의 제곱 값은 0.213이다. 따라서 임파워먼트 및 삶의만족도 AVE값인 0.607, 0.696 모두 0.213보다 크기 때문에 판별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나머지 잠재변수 간에도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판단된다.

8) Cronbach's α 계수 값이 0.7 이상이면 바람직한 수준이다(채서일, 2013).

〈표 2〉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변수	측정변수	표준화 요인 적재치	S.E	C.R	S.M.C	개념 신뢰도	AVE	Cronbach's α 값	
사회적배제	경제배제	경제배제1	0.768	0.059	15.058	0.590	0.887	0.611	0.898
		경제배제2	0.830	-	-	0.689			
		경제배제3	0.761	0.059	14.866	0.579			
		경제배제4	0.837	0.060	16.926	0.701			
		경제배제5	0.792	0.062	15.681	0.627			
	사회배제	사회배제3	0.691	0.099	9.091	0.478	0.831	0.626	0.708
		사회배제4	0.791	-	-	0.626			
		사회배제5	0.550	0.105	7.914	0.302			
	정치배제	정치배제1	0.574	0.071	10.368	0.329	0.869	0.621	0.829
		정치배제2	0.866	-	-	0.749			
		정치배제3	0.861	0.058	16.859	0.741			
		정치배제4	0.651	0.065	12.118	0.424			
		정치배제5	0.579	0.075	10.479	0.335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1	0.659	0.118	9.268	0.434	0.860	0.607	0.745
		임파워먼트2	0.718	-	-	0.516			
임파워먼트3		0.601	0.103	8.642	0.361				
임파워먼트5		0.650	0.114	9.177	0.422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2	0.743	0.073	11.633	0.552	0.873	0.696	0.784	
	삶의 만족도3	0.784	-	-	0.614				
	삶의 만족도4	0.704	0.076	11.163	0.496				
모형 적합도	$\chi^2=297.030(df=160, p=.000)$, $Q(\chi^2/df)=1.856$, $GFI=0.915$, $AGFI=0.889$, $CFI=0.944$, $NFI=0.888$, $TLI=0.934$, $RMR=0.040$, $RMSEA=0.053$								

2. 기술통계 분석결과

본 연구의 응답자 표본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첫째, 응답자 성별 분포는 남성이 133명(43.5%), 여성이 173명(56.5%)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력수준별 분포는 고졸이 156명(51.0%)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이 107명(35.0%), 중졸이 23명(7.5%), 대학원 이상이 14명(4.6%), 초졸 이하가 6명(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162명(52.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가 89명(29.1%), 60대가 47명(15.4%), 70대 이상 8명(2.6%)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월 평균 소득별 분포는 201-300만원이 73명(23.9%)로 가장 많았으며, 301-400만원과 501만원 이상이 각각 67명으로(21.9%), 401-500만원이 57명(18.6%), 101-200만원이 32명(10.5%), 100만원 이하가 10명(3.3%)로 나타났다. 다섯째, 직종별 분포는 기타가 102명(33.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문직 63명(20.6%), 사무직 49명(16.0%), 생산직 37명(12.1%), 기술직 35명(11.4%), 판매직 20명(6.5%)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근로 조건별 분포는 상용직이 159명(52.0%)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가 126명(41.1%), 임시직이 17명(5.6%),

일용직이 4명(1.3%) 순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가구형태별 분포는 부부가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193명(63.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부만 살고 있는 경우 58명(19.0%), 혼자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23명(7.5%), 혼자 거주하는 경우 18명(5.9%), 기타는 14명(4.6%)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응답자 표본의 인구사회학적 속성별 빈도분석 결과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변수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33	43.5	직종	생산직	37	12.1	
	여	173	56.5		사무직	49	16.0	
학력수준	초졸 이하	6	2.0		전문직	63	20.6	
	중졸	23	7.5		기술직	35	11.4	
	고졸	156	51.0		판매직	20	6.5	
	대졸	107	35.0		기타	102	33.3	
	대학원 이상	14	4.6		근로조건	상용직	159	52.0
연령	40대	89	29.1			임시직	17	5.6
	50대	162	52.9			일용직	4	1.3
	60대	47	15.4			기타	126	41.1
	70대 이상	8	2.6	가구형태	부부가 자녀와 함께	193	63.1	
월 평균소득	100만원 이하	10	3.3		부부만	58	19.0	
	101-200만원	32	10.5		혼자 자녀와 함께	23	7.5	
	201-300만원	73	23.9		혼자	18	5.9	
	301-400만원	67	21.9		기타	14	4.6	
	401-500만원	57	18.6					
	501만원 이상	67	21.9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변수별 기술통계 즉, 평균 및 표준편차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사회적 배제의 하위변수인 경제배제의 평균값은 2.703(표준편차:0.894), 사회배제의 평균값 3.058(표준편차:0.566), 정치배제의 평균값은 3.738(표준편차:0.665)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매개변수인 임파워먼트의 평균값은 3.572(표준편차:0.529)로 나타났으며,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의 평균값은 2.991(표준편차:0.61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임파워먼트가 '보통'점수인 3점보다 높은 응답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중·고령자들의 임파워먼트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경제배제, 사회배제, 정치배제, 임파워먼트, 삶의 만족도 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이 두 변수 간 상관관계는 경제배제와 정치배제 간의 관계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배제는 사회배제와 0.231로 정(+)적 상관관계를, 임파워먼트와 -0.218, 삶의 만족도와 -0.380으로 각각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사회배제의 경우 정치배제와 0.127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임파워먼트와는 -0.309, 삶의 만족도와 -0.406으로 각

각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배제는 임파워먼트와 -0.150으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삶의 만족도와는 -0.171로 부(-)적 상관관계를 각각 나타냈다. 또한 임파워먼트의 경우에는 삶의 만족도와 상관계수가 0.461로서 통계적으로 가장 큰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모형에 있어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경제배제, 사회배제, 정치배제, 임파워먼트, 삶의 만족도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모두 0.8이하로, 기준조건에 부합하는 수치임으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⁹⁾

〈표 4〉 변수별 평균 및 표준편차와 상관관계분석 결과

변수	평균	표준편차	경제배제	사회배제	정치배제	임파워먼트	삶의 만족도
경제배제	2.703	0.894	1.000				
사회배제	3.058	0.566	0.231***	1.000			
정치배제	3.738	0.665	-0.015	0.127**	1.000		
임파워먼트	3.572	0.529	-0.218***	-0.309***	-0.150***	1.000	
삶의만족도	2.991	0.618	-0.380***	-0.406***	-0.171***	0.461***	1.000

p<.05, *p<.01

3. 가설검증 결과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간의 경로계수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이 제시되며, 연구모형의 분석결과는 〈그림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설 1〉 ‘사회적 배제는 임파워먼트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서 임파워먼트에 대한 각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경제배제는 임파워먼트에 직접적으로 유의미($t=-1.851^*$, $p=0.064$)한 부(-)적인 영향($\beta=-0.13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둘째, 사회배제 또한 임파워먼트에 직접적으로 유의미($t=-4.577^{***}$, $p=0.000$)한 부(-)적인 영향($\beta=-0.385$)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2〉도 채택되었다. 셋째, 정치배제는 임파워먼트에 통계적으로 무의미($t=-1.319$, $p=0.187$)한 것으로 나타나 〈가설 1-3〉은 기각되었다. 〈가설 2〉 ‘사회적 배제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서 삶의 만족도에 대한 각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경제배제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유의미($t=-4.380^{***}$, $p=0.000$)한 부(-)적인 영

9)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와 관련하여 독립변수들 간 상관계수가 0.8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신황용·이희선, 2012),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들 간 상관계수는 임파워먼트와 삶의 만족도 간 $r=0.461$ 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므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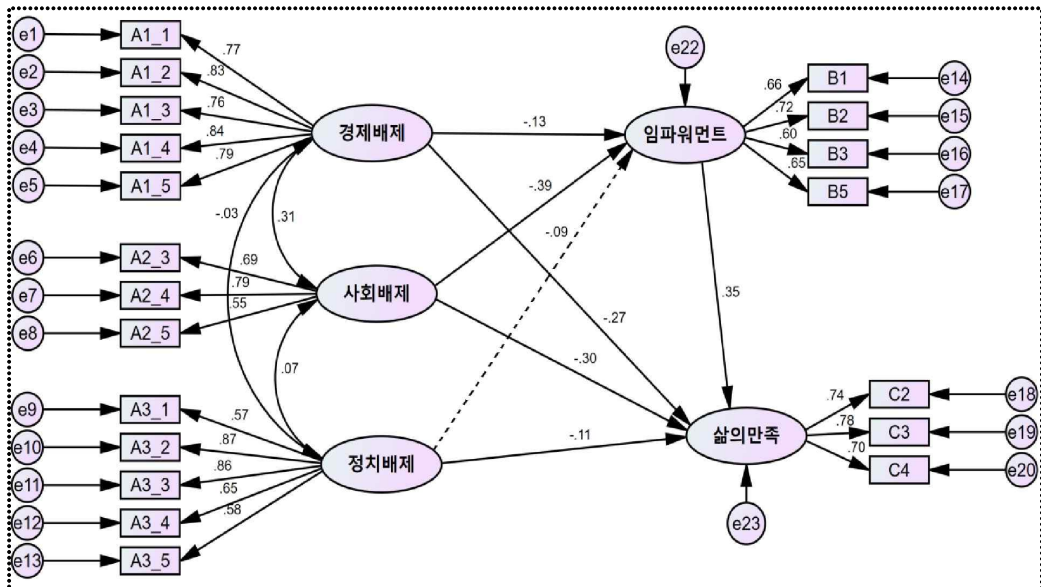
향($\beta=-0.273$)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둘째, 사회배제 또한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유의미($t=-3.907^{***}$, $p=0.000$)한 부(-)적인 영향($\beta=-0.303$)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2>도 채택되었다. 셋째, 정치배제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유의미($t=-1.886^*$, $p=0.059$)한 부(-)적인 영향($\beta=-0.107$)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3>도 채택되었다. <가설 3> ‘임파워먼트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에서 경로계수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임파워먼트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유의미($t=4.555^{***}$, $p=0.000$)한 정(+)적인 영향($\beta=0.349$)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3>은 채택되었다.

<표 5> 경로계수 분석 결과

가설	경로	경로계수		S.E	t값 (C.R)	P	채택 여부
		표준화(β)	비표준화				
가설1-1	경제배제→임파워먼트	-0.131	-0.067	0.036	-1.851*	0.064	채택
가설1-2	사회배제→임파워먼트	-0.385	-0.337	0.074	-4.577***	0.000	채택
가설1-3	정치배제→임파워먼트	-0.087	-0.057	0.043	-1.319	0.187	기각
가설2-1	경제배제→삶의 만족도	-0.273	-0.187	0.043	-4.380***	0.000	채택
가설2-2	사회배제→삶의 만족도	-0.303	-0.355	0.091	-3.907***	0.000	채택
가설2-3	정치배제→삶의 만족도	-0.107	-0.093	0.049	-1.886*	0.059	채택
가설3	임파워먼트→삶의 만족도	0.349	0.467	0.103	4.555***	0.000	채택

* $p<.1$, ** $p<.05$, *** $p<.01$

<그림 2> 연구모형 분석결과



이상과 같이 경제배제, 사회배제, 정치배제가 임파워먼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매개효과의 분석결과 첫째, 경제배제가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사회배제가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정치배제가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따라서 정치배제는 통계적으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제배제와 사회배제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모형에서 경제배제, 사회배제, 정치배제가 임파워먼트를 통해 간접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우선, 경제배제가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beta = -0.046^*(-0.131 \times 0.349)$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찬가지로 사회배제가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beta = -0.135^{**}(-0.385 \times 0.349)$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정치배제가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beta = -0.031(-0.087 \times 0.349)$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따라서 경제배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경제배제는 삶의 만족도에 미친 직접적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도 유의하므로 총 효과는 $\beta = -0.319$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사회배제도 삶의 만족도에 미친 직접적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도 유의하므로 총 효과는 $\beta = -0.438$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정치배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친 직접적인 효과는 유의미하나 임파워먼트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총 효과는 $\beta = -0.107$ 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끝으로 임파워먼트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적인 효과만 있으므로 임파워먼트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유의미한 총 효과는 $\beta = 0.349$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매개변수인 임파워먼트는 독립변수인 경제배제와 사회배제,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함으로써 경제배제와 사회배제가 삶의 만족도에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한편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삶의 만족도의 변수에 대하여 사회배제의 주요 변수들과 더불어 임파워먼트의 변수가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총 효과와 그 크기의 순서를 살펴보면 절대 값이 사회배제가 $\beta = -0.438$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임파워먼트 $\beta = 0.349$, 경제배제 $\beta = -0.318$, 정치배제 $\beta = -0.107$ 의 순으로 영향력의 크기를 각각 나타내었다.

〈표 6〉 매개효과 분석 결과

구분		경제배제	사회배제	정치배제	임파워먼트
임파워먼트	직접효과	-0.131*	-0.385***	-	-
삶의 만족도	직접효과	-0.273***	-0.303***	-0.107*	0.349***
	간접효과	-0.046* (-0.131×0.349)	-0.135** (-0.385×0.349)	-	-
	총효과	-0.319	-0.438	-0.107	0.349

*p<.1, **p<.05, ***p<.01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배제 및 임파워먼트와 삶의 만족도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요약 및 일반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배제가 임파워먼트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사회적 배제의 하위변수로 설정한 경제배제 변수는 임파워먼트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권신영(2012), 이화명(2015), 김현숙(2015), 조희준(2017) 등의 연구에서 경제배제수준이 높을수록 임파워먼트가 낮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배제의 하위변수로 설정한 사회배제 변수도 임파워먼트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권신영(2012), 이화명(2015), 김현숙(2015), 조희준(2017) 등의 연구에서 사회배제수준이 높을수록 임파워먼트가 낮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한편 사회적 배제의 하위변수로 설정한 정치배제 변수는 임파워먼트에 무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낙현(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사회적 배제가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사회적 배제의 하위변수로 설정한 경제배제 변수는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연희·신황용·이희선(2012), 임동현(2013), 김자영·한창근(2016), 원서진·김혜미·송인욱(2016), 조희준(2017) 등의 선행연구들을 대부분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배제의 하위변수로 설정한 사회배제 변수도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재성·강영숙·김진욱(2009), 김연희·신황용·이희선(2012), 김자영·한창근(2016), 조희준(2017) 등의 선행연구들을 지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배제의 하위변수인 정치배제 또한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치배제가 삶의 만족도에 무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김연희·신황용·이희선(2012) 등의 연구결과와 상치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에서의 배제가 실질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나, 점차 국민들의 전반적인 정치적 수준이 증가하고, 배제된 사람들의 목소리와 요구가 정치적 안전에 포함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겪게 되는 상황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매개변수로서 임파워먼트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임파워먼트의 변수는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임파워먼트가 삶의 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Boyd & Bentley(2005), 최명민·이기영·엄태완(2006), 박미경(2011), 이수천 외(2013), 강경순(2011), 오옥선(2014), 김안나·최승아(2016), 김안나·최승아(2017) 등 다수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임파워먼트 수준을 높이는 것이 주요 방안임을 확인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모형의 분석결과에서 중·고령자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결정요인들의 직·간접적인 상대적 기여도는 사회배제($\beta=-0.438$), 임파워먼트($\beta=0.349$), 경제배제($\beta=-0.318$), 정치배제($\beta=-0.107$)의 순으로 상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는 삶의 만족도 향상에 주된 관심을 가진 정책결정자들이 향후 정책수립 시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배제, 임파워먼트, 경제배제, 정치배제 등의 변수들을 관리수단으로 고려해야하며 이와 동시에 이들 변수들 간의 우선순위를 반영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그 동안 연구가 미흡했던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 및 그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의 검토를 토대로 경제배제, 사회배제, 정치배제 등의 사회적 배제가 임파워먼트와 함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매개변수와 관련하여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직·간접적인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는 임파워먼트가 $\beta=0.349$ 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고령자의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중·고령자들에게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법적 권리주장 훈련 교육, 욕구충족에 필요한 지식과 전문성 향상 교육,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원 획득능력 향상 교육, 자원획득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기술 교육(Longress and McLeod, 1980; 박미은, 1996 재인용)등을 고려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 독립변수와 관련하여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의 크기는 사회배제($\beta=-0.438$), 경제배제($\beta=-0.319$), 정치배제($\beta=-0.107$)의 순서로 입증되었다.

첫째, 사회적 배제 하위 변수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은 사회배제($\beta=-0.438$)로

써, 사회배제를 완화시킴으로써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조기퇴직을 경험한 중·고령자는 직업의 상실과 장기간의 소득상실로 인해 지역사회 및 각종 사회적 관계망으로부터 단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친숙한 외부집단과의 단절이라는 심리적 연대도 중단되는 이중적 고통을 가져오게 된다(최선미, 2001). 그러나 중·고령자의 사회적 연대망과 외부의 자원은 그들의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의식에 기초한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사회배제 다음으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은 경제배제($\beta=-0.319$)로서, 이를 완화시키려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중·고령자들은 조기퇴직을 비롯한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이 노동시장에 재편입하려는 의지가 있더라도 사회적 편견과 저임금, 근본적으로는 부족한 일자리 등으로 인해 지속적인 주변화 상태에 머물게 된다(최선미, 2001). 따라서 경제배제를 겪고 있는 중·고령자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기초 연금 강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의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내 일자리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경제배제 다음으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변수는 정치배제($\beta=-0.107$)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치배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고령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책결정 및 전달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그들의 욕구와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임을 미루어 짐작해볼 때, 직접적인 의사가 표출되고 수렴되는 과정의 제도변화를 통해 정치배제를 완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적 배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를 개념화하는데 있어서 경제배제, 사회배제, 정치배제로 유형화 하였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이는 기존 이론 및 논의를 통해 사회적 배제의 하위변수를 더욱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나 포괄적인 명칭을 부여하여 광범위한 수준에서 살펴보았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여러 측면의 구성변수를 이용하여 다차원성의 성격을 지닌 사회적 배제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조사의 편의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표본추출을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중·고령자로 한정하여 편의표집추출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전국의 중·고령자로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대표성 있는 표본추출 설계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는 사회적 배제와 임파워먼트 이외의 다른 변수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변수들을 포함시키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잠재변수를 탐색하여 보다 타당성 있는 변수 간의 관계설정을 통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강경순(2011). 「정신장애인의 영적 안녕과 임파워먼트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강소랑·문상호(2010). “중,고령자의 직무 특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고령화연구패널(KLoSA)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6(3): 225-255.
- 강신욱(2006). “사회적 배제 개념의 정책적 적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 「동향과 전망」, 66: 9-32.
- 강현정(2009). “농촌 여성독거노인의 사회활동과 삶의 만족도,”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1-26.
- 권신영(2012). 「빈곤 여성가구주의 사회적 배제가 자활성가에 미치는 영향연구: 임파워먼트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수봉(2009). “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2: 133-146.
- 김안나·최승아(2016). “결혼이주여성의 복지서비스 이용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 「사회복지연구」, 47(2): 281-308.
- _____ (2017). “외국인근로자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학력 미스매치, 차별경험, 임파워먼트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8(2): 331-357.
- 김연희·신황용·이희선(2012). “사회적 배제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3(3): 99-123.
- 김자영·한창근(2016). “장애인 가구주의 사회적 배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산수준의 매개효과 검증,” 「사회과학연구」, 42(2): 169-190.
- 김태준(2010). 「사회적 배제가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숙(2015). “가구주의 사회적 배제 수준이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31: 281-309.
- _____ (2010). “한국의 사회적 배제 성격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2(2): 87-107.
- 김혜란·좌현숙·차유림·문영주·김보미(2006). 「사회복지실천과 역량강화」. 서울 나눔의 집.
- 박미경(2011). 「정신장애인의 임파워먼트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란·최정원(2015). “사회적 배제에 나타난 노년기 경제적 배제에 관한 연구,” 「한국복지실천학회지」, 7(2): 85-104.
- 박미은(1996). “학대받는 아내의 심리사회학적 대응과정과 사회사업적 임파워먼트,” 「정신보건과

- 사회사업, 3: 53-80.
- 박미현(2012). “중고령자 자영업의 생존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0세 전후 창업 비교를 중심으로,” 「글로벌사회복지연구」, 2(2): 31-49.
- 박민서·조규범(2003). “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3(1): 287-303.
- 박병현·최선미(2001). “사회적 배제와 하층계급의 개념 고찰과 이들 개념들의 한국빈곤정책에의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45: 185-219.
- 박요한(2014). 「사회적 배제가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낙현(2014).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회적 배제가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자본,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연구: 충청북도 자활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명호(2004). “한국사회의 새로운 빈곤 혹은 사회적 배제,” 「도시와 빈곤」, 67: 160-170.
- 신명호 외(2004).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본 빈곤층 실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신선화(2016). “대학생의 주관적 웰빙과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개인내적 임파워먼트의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0): 56-64.
- 신황용·이희선(2012). 「공공조직 조직성과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공직동기, 신분불안, 직무만족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옥선(2014).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부정정서, 심리적 안녕감 및 임파워먼트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20(1): 45-65.
- 우종필(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Amos 4.0-20.0 공용」. 한나래아카데미.
- 원서진·김혜미·송인옥(2016). “사회적 배제가 중고령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령에 따른 차이점 분석,”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6(8): 301-311.
- 윤지은·전혜정(2009).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상태와 정신건강: 소득수준과 가족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노년학」, 28(2): 743-759.
- 윤현숙·원성원(2010). “노인의 영성과 종교 활동이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0(4): 1077-1093.
- 이수천·박진희·조미애·최윤석(2013). “아동의 임파워먼트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5: 83-107.
- 이용주(2007). 「사회적 지지가 시각장애인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화명(2015). 「한부모 빈곤 여성이 지각하는 사회적 배제가 빈곤 극복의지에 미치는 영향: 임파워먼트의 매개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신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동현(2013).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기(1999). 「사회적 지지가 정신장애인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거주유형별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종미(201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에 대한 비교」.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순돌·이현희(2012). “베이비붐세대의 삶의 만족도: 1998년과 2008년의 비교,” 「노인복지연구」, 55: 105-131.
- 조현석(2017). 「중·고령자의 직업 특성이 직무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제5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희준(2017). 「사회적 배제 정도가 장애인의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채서일(2013). 「사회과학조사방법론」. 비앤엠북스.
- 최명민·김기덕(2013). “기든스의 성찰성 이론을 통한 임파워먼트의 재해석,” 「한국사회복지학」, 65(2): 103-130.
- 최명민·이기영·엄태완(2006). “정신장애인의 임파워먼트 및 삶의 질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4: 94-124.
- 최선미(2001). 「장기실업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임파워먼트 모델개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성수·이가람·이성민(2008). “사회적 연결망과 은퇴 경험이 한국 중고령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8(2): 291-307.
- 최성재(1986). 「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부설한국 문화연구원 논총.
- 최재성·강영숙·김진욱(2009).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지된 사회통합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1: 309-341.
- 통계청(2018). 「국내인구이동통계」.
- 한국노동연구원(2007). 2006년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차 기본조사 사용자 안내서.
- 한국은행(2018). 「2016년 국민계정(확정) 및 2017년 국민계정(잠정)」.
- Barclay, D., Thompson, R., and Higgins, C.(1995). The Partial Least Squares(PLS) Approach to Causal Modeling: Personal Computer Adoption and Use as an Illustration. *Technology Studies*, 2(2): 285-309.
- Berghman, J.(1995). “Social Exclusion in Europe: Policy Context and Analytical Framework”. *in Beyond the Threshold: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edited by G. Room. Bristol: Policy Press.
- Bhalla, A. S. and F. Lapeyre(1997). Social Exclusion: Towards an Analytical and Operational Framework, *Development and Change*.
- Diener, Emmons, Larsen, and Criffin(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Efklides, A., Kalaitzidou, M., & Chankin, G.(2003). Subjective quality of life in Old Age in Greece: The Effect of Demographic Factors, Emotional State, and Adaptation to Aging. *European Psychologist*, 8: 178-191.

Giddens, A.(1998). *The Third Way*. Cambridge: Policy Press.

Gordon, D and P. Townsend.(eds)(2000). *Breadlline Europe-The Measurement of Poverty*. The Policy Press.

Gutierre Z, L.(1990). "Working with women of color: An Empowerment Perspective," *Social Work*. 35(2): 149-154.

Levitas, R.(2000). "What is social exclusion?" in Gordon, D and P. Townsend.(eds). *Breadlline Europe*. The Policy Press, 357-383.

S.E.U. (2006). *The Social Exclusion of Older People: Evidence from the First Wave of the English Longitudinal Study of Ageing(ELSA), Final Report*

Staub-Bernasconi, S.(1992). Social Action, Empowerment and Social Work: An Integrative Theoretical Framework for Social Work and Social Work with Groups. *Social Work with Groups*, 14(3-4): 35-52

Thomas, K. W. and B. A. Velthouse(1990). Cognitive Elements of Empowerment: An "Interpretive" Model of Intrinsic Task Motiv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5(4): 666-681.

Turner, B. (서용석·박철현 옮김), 「시민권과 자본주의」. 일신사.

Robinson, P., and C. Oppenheim(1998). Social Exclusion Indicators: A Submission to the Social Exclusion Unit. London,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Vleminckx, K & J. Berghman(2001). Social Exclusion and the Welfare State: an Overview of Conceptual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 *Social Exclusion and European Policy*, Edward Elgar.

* **황혜인(黃惠仁)**: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학위(논문: 사회적 배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분석)를 취득하였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분석 및 평가, 복지정책, 계량분석 등이다(anne1028@naver.com).

* **김연희(金娟姬)**: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한국복지정책과 소득불평등의 결정요인 관한연구: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경로분석, 2009)를 취득하고, 현재 호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정책분석 및 평가, 복지정책, 계량분석 등이며, 논문으로는 “우리나라 복지 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지역간 노인복지시설 차이를 중심으로”(2013), “경찰공무원의 개인-환경 적합성이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영향”(2015) 등이 있다(kyh5010@howon.ac.kr).

* **이희선(李熙善)**: 미국 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논문: Determinants of Welfare Policy and Basic Human Needs in Korea: A Time-Series Analysis(1962-1987, 1989)를 취득하고, 현재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조사방법, 계량분석, 정책분석, 사회복지 등이며, 주요 저술로는 「정책분석론: 제5판」(공역, 2013)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Factors Associate with Suicidal Ideation: the Role of Context” Journal of Public Health(December 2012), “Social Capital and Mental Health in Seoul, South Korea: A Multilevel Analysis of 4,734 People in 25 Administrative Area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July 2013), “Social Capital and Depression: Does Household Context Matter?” Asia-Pacific Journal of Public Health(2013), “주민자치센터의 공공서비스품질이 참여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 가치지각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2017) 등이 있다(hsleehy@hanyang.ac.kr).